

영암군, 가축전염병 관내 유입 차단 방역 선제적 대응

겨울철 발생 가능성 높아...방역대책상황실 조기 운영·현장점검 강화

방역대책상황실...예년보다 1개월 빠른 이번달부터 운영 선제적 방역

영암군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1개월 빠른 9월부터 조기 운영하여 선제적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제적 방역은 '20년 들어 우리나라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497건으로 전년 동기 대

비 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육중인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어 겨울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대비 방역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조기에 방역대책상황

실을 운영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9월 중으로 모든 방역 미흡사항을 보완 ▶관내 AI 고위험지구인 철새도래지"영암호(삼호,미암), 금지저수지(시종), 조감저수지(도포)" 주변 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통행금지를 내년 3월까지 시행함으로써 축산차량(가금류) 우회도로 이용

홍보 ▶추석명절 귀성객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과태료 기준 계도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준수 및 고향으로부터 불법 축산물 수령하지 못하도록 방역수칙 안내 ▶농장별 담당관제를 운영 주 1회 이상 전화 예찰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방역강화 조치로 농장 단위 차단방역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9월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은 철저한 ASF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단위 방역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무료 예방접종

2회 접종 이번달 8일부터·1회 접종 이번달 22일부터

목포시는 오는 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생후 6개월~만 12세에서 만 18세 까지로 확대됐다.

인플루엔자를 생애 첫 접종하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아동은 적절한

면역 생성을 위해 9월 8일부터 총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하며, 만 9세 이상~18세 이하는 9월 22일부터 한번만 접종한다.

한편, 임신부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예방접종하며 산모수첩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종대상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의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12월 이전에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예방접종실(270-8800)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수·화재 피해 축산농가 위로 방문

피해 입은 축산농가...신속한 피해 복구 주문



영광군수는 지난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화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농가는 영광군 흥농읍 성산리에 거주하는 A씨로 지난 3일 새벽 태풍에 의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한우 8두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김준성 영광군수는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규모 및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화재 피해 농가 A씨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 따뜻하게 건네주신 격려에 위로가 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태풍 '마이삭'의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 농가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복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혈액수급 안정화 위해 사랑의 헌혈

공무원과 지역 주민 40여명 동참



무안군은 지난 9월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생명사랑나눔 헌혈운동을 추진했다.

이번 헌혈운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져 개인과 단체헌혈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헌혈은 군 보건소와 승달문화예술회관 광장에 준비된 대한적십자사 버스에서 공무원과 지역 주민 4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농림 공모사업 선정 총 사업비 110억 확보'

침체된 경제 숨통 트일 전망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군이 거둔 공모사업 최대 성과로, 국비만 77억 원에 달해 침체

된 지역경제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인프라 조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다.

생활편의서비스 품질 향상, 주민화합도 등 농촌정주여건 개선이 주

목적이다. 이번에 군이 선정된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오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적극 육성,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등 실현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준 기자

함평군수, '생명사랑 챌린지' 캠페인 동참

이상의 함평군수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지난 4일 '생명사랑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군수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이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자살은 우리 각자가 주위 이웃들을 조금만 세심

히 살펴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는 지난 2003년 자살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올해 군은 자살 예방의 날 18주년을 맞아 9월 한 달간 ▲코로나 우울 극복 '마음댈심사업' ▲자살예방의 날 기념주간 온라인 이벤트 ▲생명사랑 챌린지 등의 다양한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을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준 기자

신안군, '섬 조' 가공한 '서숙떡' 상품화 코앞

신안군은 압해읍 고이도 섬을 중심으로 육성 중인 조를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상품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조 소비 확대를 위해 5월부터 세종식품연구소와 조 가공품 개발에 착수 후 중간보고회에 나온 의견들을 보완하여 지난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자와 여직원들이 참석해서 조 가공품 1차 품평회를 가졌다.

이번 품평회 참석자들은 6종 가공품을 일일이 맛을 보며 호감도, 모양, 맛,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조와 찹쌀을 섞어 반죽하고 조를 튀겨 고물을 만든 떡이 가장 반응이 좋았으며 젊은층을 겨냥한 치즈

넵은 설기떡도 호응이 좋았다.

특히, 조 가공품을 차조 방인인 '서숙'이라 쓰기로 하여 쉽고 정감있게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반응 좋은 가공품에 대해 2차 품평회를 갖고, 신안군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